스마트 · 나노 신섬유로 녹색성장

섬유산업연합회는 스마트 · 나노 · 친환경 등의 신섬유를 통해 국내 녹색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.
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장은 1월11일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<섬유 · 패션인 신년인사회>에서 " 신섬유를 개발해 국가 녹색성장을 이끌겠다 "고 말했다.
노희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" 섬유 · 패션산업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기간산업 "이라며 " 고부가가치 신섬유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"고 강조했다.
이어 "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2009년 섬유수출은 2008년의 133억달러보다 12.6% 감소한 116억달러를 기록했다 "며 " 2010년에는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목표 131억달러를 반드시 달성하자 "고 말했다.
국내 섬유 · 패션 관련산업은 스트림(Stream)간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 · 조선 · 우주항공 등 소재 관련산업의 수요기반도 넓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섬유산업연합회는 중점 과제로 ▲섬유수출 131억달러 달성 ▲스트림간 협력과 시너지 제고 ▲자유무역협정(FTA) 확산 ▲슈퍼 · 나노 · 스마트 · 친환경 섬유 개발 및 4개 분야 110개 과제의 본격 추진 등을 제안했다.
노희찬 회장은 섬유 · 패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뒷받침할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 촉진법 제정 및 한국-미국, 한국-EU(유럽연합) FTA의 조속한 비준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0/1/25>